

글로벌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활성화 '앞장'

전주시, 3년 연속 국토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선정

전주시가 3년 연속으로 정부의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 선정돼 글로벌 드론 레저·스포츠 선도도시를 향한 순항을 이어나가게 됐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 실증을 위한 국비 1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반영해 올해 실증도시 공모의 핵심 사업 분야로 '드론 레저산업 육성'과 '드론 배송 사업화'를 제시했다.

이에 시는 드론축구 중추도시라는 이점을 살려 캠프종합기술원과 국제

드론축구연맹, 대한드론축구협회, GBP, 디클래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드론축구를 기반으로 한 드론 레저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시 컨소시엄은 드론축구의 국내·외 확산 가속화와 세계적인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 개최를 목표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추진 △'K-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출범 및 운영 △초·중·고 드론축구팀 창단 지원 및 리그 활성화 등 총 3가지 사업을 발표했다.

전주시 컨소시엄은 오늘 5월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토부 주관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서 아시아

월드컵프리대회와 세미프로리그 출범식 개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와 캠프종합기술원은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한 이후 경기규칙 개정과 시스템 고도화 등 선수와 관객들이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으며, 드론축구가 신개념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년 동안 국제대회를 포함한 총 36회의 드론축구대회가 전국에서 개최됐으며, 13개 국가가 참여한 국제드론축구연맹(FIDA)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등 드

론축구의 외연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시는 또 지난 1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4'에 참가해 드론축구 제품 전시와 드론축구 시범 경기 개최 등을 통해 AFP, BBC 등 유수의 해외언론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기도 했다.

우병기 전주시장은 "드론산업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주시는 레저·스포츠라는 드론 활용분야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드론 기관 및 기업과 함께 공모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드론축구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나아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성공 개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지난달 29일 서원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적극 협력

전주시설공단-서원시니어클럽,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주시 서원시니어클럽(관장 김경옥)과 손을 맞잡았다.

공단은 지난달 29일 서원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를 통한 공공시설 이용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공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에 협약을 골자다.

공단은 서원시니어클럽과 수영장 '시니어 라이프가드' 어울림 버스 승하차 도우미 '따뜻한 동행', '꽃길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수영장 안전요원으로서 이용객들의 안전한 체육 활동을 돕고, 장애인 이동 수단인 '어울림 버스'의 승객 승하차를 도우며, 낙후된 거리와 유흥지 등에 꽃길을 조성하는 게 이들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올 한해 이들 사업으로 만들어진 노인 일자리는 총 140여 개에 달한다.

구대식 이사장은 "시니어의 숙련된 '경험'과 공단의 '공간' 인프라가 만나 지역사회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고,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공공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1000여명에 48만원 상당 지원

전주시가 올해도 산모와 신생아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산모의 영양 관리를 돕기 위해 올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오는 3월 10일까지 에코이메일(www.ecoemai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동일 자녀에 대해 임신부일 때 지원받았던 산모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사업지원이 진행 중인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은 886명으로, 시는 당초 지원계획인 1000명이 초과 접수할 경우에는 도내 시군 사업량 재배정 및 예산 추가 편성 등을 통해 모든 임신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신청한 모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은 시비를 추가 확보해 총 1123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했다.

시는 향후 대상으로 확정된 임신부에게 임신부전용 주문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발급·통지해 임산부가 편리하게 친환경농산물(유기무

항생제 축산물, 유기 수산물)과 유기 가공식품(유기농약 원료 가공식품)을 주문하고 거주지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주문물 회원가입과 주문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공급업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맡게 되며, 센터는 오는 4월부터 전주시를 비롯해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전북지역 7개 시·군의 임산부 125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게 된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모자건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 장애인·보호자 위한 통합건강관리 교육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지난달 29일 덕진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통합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소 등록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당신을 노리는 목소리,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협업 및 협당 측정과 개인별 건강상담 등도 이뤄졌다.

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지역사회 기관·단체들과 협력해 △뇌 건강과 치매예방 △장애인구강관리 및 검진 등을 주제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통합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건강관리 교육에서는 각 주제의



전문가들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각자의 건강과 복지를 챙길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장애인들

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재활사업을 제공하겠다"면서 "이번 교육이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덕진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는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1대1 재활운동, 방문재활 등) △사회참여프로그램(도자기공예, 원예치료 등) △장애 발생예방 및 홍보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재활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예수병원 간호국은 최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수간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예수병원 간호국, 수간호사 워크숍 열어

예수병원 간호국(한순희 간호국장)은 최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24년 수간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간호관리자를 위한 문제해결전략'이라는 주제로 연 워크숍은 이성희 교육과정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간호국 수간호사 외 감염관리실과 QFS실 간호사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됐다. 워크숍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간호관리자로서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

시키고 자격을 갖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소통의 장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고 의료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순희 간호국장은 "개방적이고 수평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간호문화를 구축해 구성원이 행복한 간호현장, 간호의 미래를 열어가는 신뢰받는 간호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